

# 강하늘 “시인 윤동주, 그도 우리처럼 질투하며 사랑했다”

## 영화 '동주'로 시인 윤동주를 풀어낸 강하늘

순백의 천사 아닌 인간 윤동주 알게 돼  
훗날 그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  
‘천천히 흘러가는 연기자’가 목표  
영화·드라마·연극까지…나의 재충전법



영화 '동주'는 흔히 기억해온 흑백사진 속 윤동주 시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흑백필름으로 완성됐다. 사진제공 | 루스아소니도스

강하늘(26)은 영화 '동주'의 촬영이 끝났음을 알리는 이준의 감독의 “컷!” 소리를 듣자마자 손에 쥐고 있던 시나리오를 하늘 뒤로 던졌다.

“몇 장의 종이조각(시나리오)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던지, 촬영 내내 편히 잡을 잔 적이 없다. 중압감과 부담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잠수를 탈까, 숨어 버릴까. 별 생각을 다했다.”

17일 개봉하는 '동주'(제작 루스아소니도스)는 시인 윤동주의 이야기다. 누구나 알고 있는 '별의 시인'이지만 정작 윤동주의 청춘, 인간적인 모습을 들여다볼 기회는 없었다. 영화는 갈망과 번민에 찬 윤동주의 짧은 날들을 펼친다.

그런 시인의 모습을 그려낸 강하늘은 “훗날 윤동주 시인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만큼 집중해 표현했기에 미련이 없다는 뜻이다. “시인 윤동주가 아닌, 인간 윤동주를 알게 된 기분”이라고 했다.

사실 강하늘은 윤동주의 오랜 팬이기도 하다. '동주'를 만난 건 어쩌면 운명일지 모른다. 시인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구입해 책장에 꽂아두고 있다. 고교 시절부터 연극무대에 올라 희곡을 접한 영향일까. 강하늘은 “시를 좋아해 백석과 이육사도 읽는다”고 했다.

그런 강하늘 역시 윤동주에 관한 고정된 이미지가 있었다. “순백의 천사 같은, 모든 게 흰 이미지”였다.

하지만 연기로 윤동주의 삶을 간접체험한 뒤 시선은 달라졌다. “그 시대를 살아낸 청춘, 사람이 느끼는 질투와 사랑의 감정을 모두 공유한 인물”이라는 판단이다.

강하늘이 대중으로부터 얻는 이미지는 일부 분 윤동주와 겹친다. 순수해 보이는 외모, 그로부터 풍기는 착할 것만 같은 분위기가 있다. 때 문일까 '연애 속매'이라는 시선도 받는다.

“연애 속매? 그건 연애하는 상대가 평가해야

할 문제이니까 잘 모르겠다. 일단 '모태솔로'가 아니라 사실은 짝고 가야겠다. 하하!”

강하늘의 모토는 단순하다.

“즐거자.”

그런 면에서 “이준의 감독과 내 지향은 같다”고 했다. 영화 데뷔작 '평양성'으로 이 감독과 처음 만나 지금껏 “친구로 지낸다”고 했다.

“쿵개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편안하게 천천히 흘러가는 연기자가 좋다. 조금해 하지 않는 편이다.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도 할 수 없다.”

그래도 연기 잘 하는 배우를 보면 “욕”이 나올 만큼 자극을 받는다. 얼마 전 영화 '버드맨'을 네 번째 보고 난 기분이 그랬다.

“에드워드 노튼을 보고 욕을 참기 어려웠다. 하하! '바스티즈'의 크리스토프 왈츠에 반한 적도 있다.”

강하늘은 '동주'와 같은 날 또 다른 출연영화 '좋아해줘'를 내놓는다. 개성이 다른 세 커플의 이야기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작곡가 역할을 맡았다. 소심한 성격 탓에 사랑 앞에 주저하지만 '고수'(이솜)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는 풋풋한 모습이다. 지금은 드라마 '보보심경:려' 촬영에도 한창이다. 눈코 뜰 새 없지만 또 다른 '욕심'까지 가졌다.

“드라마가 끝나면 공연을 할 생각이다. 작년 초 연극 '해롤드 앤 모드'를 했는데, 그때 쟁거슨 에너지가 떨어졌다. 다시 에너지 채우러 무대로 달려가야겠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 연기자 강하늘은 누구나 그 존재를 알지만 정작 깊이 알지 못했던 시인 윤동주의 삶을 영화 '동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들였다. “순백의 천사가 아닌 모든 감정을 공유한 인간이었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 연예뉴스 스테이션

### 스폰서 다룬 '그것이...', 연예인들 다양한 반응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13일 '시크릿 리스트' 편을 통해 다룬 연예계 '스폰서'의 문제에 대해 연예인들이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배우 김민정은 방송 직후 SNS에 “방송이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꿈과 열정을 쏟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배우들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연기자 박하선 역시 SNS에 “일부의 일이 전체인 것처럼 오해받을 때 속상하다”며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일 순 있어도 인생을 속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배우 한상진은 “아무렇지 않게 내 동료나 후배들, 지망생들을 돈으로 쉽게 사고 팔 수는 없다”면서 “배역을 따기 위해, 한 장면을 해내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배우들은 많다”며 씁쓸해했다. 이날 방송에는 연예계 관계자가 폭로한 스폰서의 실체를 추적해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연기자 지망생인 미성년자에게까지 재력이 남성과 만남을 제안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상중은 방송을 통해 “문제를 외면하기보다 분명한 현실임을 직시하고, 돌아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 AOA 실현, “통신사 광고 일부만 대역모델”

결그룹 AOA의 멤버 설현이 출연한 모 통신사 광고를 둘러싸고 '몸 대역' 논란이 불거졌다. 자신을 해당 광고에 대역모델로 참여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최근 SNS에 설현이 바닷가 해변에서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 속 몸이 실제로는 자신의 것이라고 알렸다. 의문이 증폭되자 설현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14일 “광고 속 몸의 일부가 대역모델의 것은 맞다”면서도 “태양으로 빨려 올라오는 특수장면, 물로 다이빙하는 장면에서만 대역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ik7048@donga.com

## 영화 랭킹

자료:영화진흥위원회  
2월 7일~2월 13일

1위 영화  
정보보기



| 순위 | 영화         | 주간관객      | 누적관객      | 개봉일   |
|----|------------|-----------|-----------|-------|
| 1  | 검사의전       | 4,982,004 | 7,533,672 | 02/03 |
| 2  | 쿵푸팬더3      | 1,260,628 | 3,536,729 | 01/28 |
| 3  | 앨빈과 슈퍼밴드4  | 181,806   | 239,274   | 02/04 |
| 4  | 캐를         | 142,336   | 193,205   | 02/04 |
| 5  | 로봇, 소리     | 90,984    | 458,835   | 01/27 |
| 6  | 오빠생각       | 78,472    | 1,051,889 | 01/21 |
| 7  |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 72,125    | 98,851    | 02/04 |
| 8  | 극장판 아이엠스타  | 70,057    | 70,831    | 02/11 |
| 9  | 레버넌트       | 53,075    | 1,991,690 | 01/14 |
| 10 | 데드풀        | 42,467    | 42,467    | 02/17 |

## ‘동주’, 4DX시대에 왜 흑백영화를 고집했나?

### 뉴스 인사이드

중학교 교과서 윤동주 흑백 사진서 비롯  
‘적은 예산’과도 부합…6억원 들여 완성

최첨단 영상 테크닉이 화려한 시대에 ‘동주’는 왜 흑백영화여야 했나.

3D 같은 입체영상이나 앉아있는 의자가 움직이고 물과 바람의 효과까지 만끽하게 하는 4DX 방식으로 영화를 보는 일은, 이제 흔하다. 더욱 선명한 영상을 구현하려 애쓰는 이 시대, ‘동주’는 뜻밖에도 흑백필름을 택했다.

영화는 시인 윤동주의 청춘을 그린다.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서시’ 만큼이나 익숙한 시인의 이미지는 흑백사진 속 모습으로 각인되고 있다. ‘동주’는 바로 그 사진에서 출발했다.

연출자 이준의 감독은 2013년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미 이때부터 ‘동주’는 흑백영화였다. 이 감독은 “우리 기억 속에 남은 사진 속 윤동주 시인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지 않았다. 그 이미지에 충실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제작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시대적 고증과 재현이 필요한 영화의 제작비는 최소 수십억원에 이른다. 지난

해 ‘암살’이나 현재 촬영 중인 ‘밀정’의 제작비 역시 100억원대다. ‘동주’ 제작진은 처음부터 ‘적은 예산으로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감독은 시나리오를 쓴 신연식 감독과도 ‘시인의 삶에 경건하게 접근하자’는 공감대를 나눴다. 그렇게 책정된 영화의 순제작비는 6억원. 이를 위해 흑백영화가 제격이었던 셈이다.

최근 극장에서 개봉한 한국영화가 흑백으로 완성되기는 드문 경우. 2013년 제주 4·3사건을 그린 영화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가 흑백으로 개봉해 14만 관객을 모았고, 2012년 ‘아티스트’가 흑백으로 개봉했지만 ‘동주’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 앞서 ‘왕의 남자’부터 최근 ‘사도’까지 상업영화로 성과를

내온 감독과 강하늘 등 유명 배우가 출연한 영화가 흑백으로 공개되기는 이례적이다. 강하늘은 “흑백영화는 관객 각자 원하는 대로 장면을 채색해 보게 하는 힘을 지녔다”며 “굴 안에 세상이 담기는 소설처럼 흑백영화도 비슷한 매력이 있다”고 밝혔다.

흑백영화의 제작 과정은 기존 영화와 얼마나 다를까. ‘동주’의 김지형 프로듀서는 “대체로 다르지 않지만 촬영 내용을 확인하는 모니터를 흑백으로 설정하고 바로바로 점검했다”며 “후반작업 과정에서 명암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현란한 시각효과에 익숙해진 관객은 흑백 영화 ‘동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색채 없이 흑백으로 표현된 영상이 관객에게는 다소 낯설 수도 있지만 반대로 향수에 젖는 관객도 많다는 점에서 기대가 쏠린다. 이해리 기자

## ‘동주’ 이어 ‘귀향’까지…스크린, 역사의 비극속으로

14세 위안부 소녀의 가슴 아픈 실화…24일 개봉



영화 '귀향'은 '동주'와는 또 다른 시선으로 일제강점기 우리의 이야기를 그린다.

사진제공 | 제이오엔터테인먼트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린 영화 '귀향'이 '동주'에 이어 24일 개봉한다. 모두 현재진행형인 역사의 상처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영화다.

'귀향'(제작 제이오엔터테인먼트)은 위안부 피해자의 실화를 파고든다. 이야기의 배경은 해방을 앞둔 1943년. 시골 마을에서 자란 14살 소녀가 영문도 모르고 일본군에 끌려가고 비슷한 처지의 소녀들을 만나 전쟁의 한 복판에서 겪는 비극을 그리고 있다.

'귀향'은 '동주'와 마찬가지로 외면하고 싶은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한다. 하지만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과 시선은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이다. 역사의 피해자로서 젊은 날들을 희생당한 인물들의 절절한 자연으로 집중도를 높인다. '귀향'에 참여한 신인배우들의 연기는 일품이다. 주인공 정민을 연기한 강하늘은 재일동포 4세. 국내에서 연기자로 활동한 경험이 없지만 '귀향'의 제작 소식을 듣고 출연료도 받지 않은 채 참여했다. 또 다른 주인공 영희 역의 서미지는 “위안부 소녀가 겪는 상황과 두려움, 슬픔을 다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 대화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했다. 이들은 촬영 전 1년 동안 자체 워크숍을 갖고 영화를 준비했다. 연출자 조정래 감독은 '귀향'이 한일간의 정치적 이슈로 해석되기를 거부한다. 그는 “여성의 인권, 전쟁범죄의 잔혹성에 관한 이야기”라며 “타향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소녀들을 영화를 통해서나마 고향으로 모셔 따뜻한 밥 한 끼 올리는 마음으로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